하늘 배부름에 삶의 블랙커피 한잔

(욥기 21:1~34)

7. 어찌하여 악인이 생존하고 장수하며 세력이 강하냐
8. 그들의 후손이 앞에서 그들과 함께 굳게 서고 자손이 그들의 목전에서 그러하구나
9. 그들의 집이 평안하여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의 매가 그들 위에 임하지 아니하며
10. 그들의 수소는 새끼를 배고 그들의 암소는 낙태하는 일이 없이 새끼를 낳는구나
11. 그들은 아이들을 양 떼 같이 내보내고 그들의 자녀들은 춤추는구나
12. 그들은 소고와 수금으로 노래하고 피리 불어 즐기며
13. 그들의 날을 행복하게 지내다가 잠깐 사이에 스올에 내려가느니라
14. 그러할지라도 그들은 하나님께 말하기를 우리를 떠나소서 우리가 주의 도리 알기를 바라지 아니하나이다
15. 전능자가 누구이기에 우리가 섬기며 우리가 그에게 기도한들 무슨 소용이 있으랴 하는구나
16. 그러나 그들의 행복이 그들의 손 안에 있지 아니하니 악인의 계획은 나에게서 멀구나

오늘 말씀 중심으로 <하늘 배부름에 삶의 블랙커피 한잔>이라는 제목의 하나님 말씀 증거 합니다.

'하늘 배부름에 삶의 블랙커피 한잔'
우리의 배부름은 하늘을 먹어서 만족해야 하고, 이 땅에서의 삶은 배부른 상태에서 마시는 블랙커피 한잔처럼 살아가자는 의미입니다.
얼마 전에 서울에 계신 목사님이 찾아오셔서 같이 갈 곳이 있다고 간절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찾아가보았더니 강릉에서도 시골에 있는 낡은 3층집으로 된 커피점이었습니다. 그 커피점은 들어가서 1시간만 머무를 수 있습니다. 1시간이 지나면 의무적으로 나가야 됩니다. 아주 유명한 장인이 커피를 내리는 곳이어서 마니아들이 그 시골구석까지 찾아옵니다. 저는 강릉에 그런 곳이 있는 줄도 몰랐는데 커피에 정통하신 목사님 때문에 그곳에 가서 커피를 마셔보았습니다. 저는 도무지 무슨 맛인지도 모르겠는데 목사님께서는 그 맛을 음미하시고 즐기셨습니다.
또 며칠 전에는 목사님 다섯 분이 오신 적이 있는데 식사를 마치고 커피를 대접한 일이 있었

습니다. 그 중에 목사님 한 분이 아메리카노를 시키셨는데 그 집 아메리카노가 유난히 진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원샷을 추가해서 더블샷으로 주문을 하시더니 그 쓰디쓴 아메리카노를 마치 꿀처럼 맛있게 드시는 것이었습니다.
뉴스에서 문재인 대통령도 커피마니아로 문재인표 브랜딩이 있다고 합니다. 청와대 참모회의 전에 커피를 한 잔씩 마시는데 한 모금 마실 때마다 안 그래도 잘생긴 얼굴이 확 펴집니다. 도대체 얼마나 맛이 좋으면 그런 표정이 되는 것일까요?
저는 하루에 커피를 한잔 정도 마십니다. 제가 주로 마시는 곳은 맥도날드인데, 설탕을 넣어서 단맛을 조정하고 크림을 3~4개 넣어서 쓴 맛을 중화시킵니다. 이렇게 해서 먹으니 커피 본래의 맛을 유지하지 못하고 맛을 희석시키는데 집중합니다. 저는 커피마니아이신 목사님들이나 문재인 대통령처럼 커피의 본래 맛을 모르는 셈입니다.
이 땅에서 사는 삶이 커피라면 블랙커피로 마셔야 합니다. 그렇지만 삶의 상황들을 블랙커피로 마시기 위해서는 빈속에 마시면 안 됩니다. 커피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점심을 먹고 나서 배가 부를 때에 마시면 더 맛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식사할 시간이 없어서 설탕과 크림을 넣고 우유나 심지어 달걀 까지 넣어서 먹는 사람들도 있는데 커피마니아들이 보면 기절할 노릇일 것입니다.

앞장에서는 친구 소발이 욥을 또 비판했습니다. 욥이 의롭다고 주장할 수 있는 이유는 모든 사람들보다 훨씬 능가하는 큰 축복 때문이라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을 근거로 하여 자신이 특별한 잘못이 없다고 여긴다는 비판이었습니다. 이어서 악인에게는 형통이 주어질 수 있지만 일시적일 뿐이며 반드시 파멸을 당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욥은 이 이야기에 대해 변론합니다. 악한 자가 오히려 형통하며 성공하고 사는 경우가 얼마나 많은지를 보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재앙이 임했다는 것만으로 악한자로 매도당할 이유가 없다고 호소합니다. 경험적으로 보아서 소발이 말한 것처럼 악인이 파멸하는 경우보다는 죽을 때까지 형통하게 사는 악인들이 많기 때문입니다.
우리도 같은 궁금증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서 악한 자들이 왜 죽을 때까지도 번영과 형통을 누리느냐는 것입니다. 물론 소발의 말처럼 일시적으로 번영을 누리다가 결국에는 파멸하는 경우도 있고, 끝까지 안정된 삶이 유지되는 경우도 봅니다.
어제 말씀을 나누었던 것처럼 천국의 좋음이 이 세상의 삶의 형편과 나란히 놓일 때에 비교할 수 있게 됩니다. 그것을 위해 십자가 사건을 첫 번째로 예고하신 직후에 변화산 사건이 있었던 것입니다. 변화산에서 제자들의 경험에서처럼 변화하신 예수님의 모습을 보았을 때에 산 아래에서 일어났던 모든 일들을 망각하고 그 자리에서 영원히 살기를 바랐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러한 비교를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천국이 가리었다면 변화산의 경험을 믿음으로 받아들여서 천국을 지금의 상황과 나란히 놓고 바라보아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제자들

이 망각했던 산 아래의 일들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기에 바쁩니다.
우리는 믿음으로 천국을 바라보고 믿음으로 천국을 누려야 하고 믿음으로 천국을 좋아해야 합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이 세상의 일들만 추구하면서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들을 선택하셔서 천국으로 이끄시기 위하여 이 세상에서 좋아하는 것들에 문제가 생기게 하실 수밖에 없습니다. 성경은 지금 이 순간 천국과 세상을 비교하라고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천국을 죽은 다음에나 맞이할 일로 생각합니다. 죽은 다음에나 천국에 가기를 바라면서 사는 동안에는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가치를 추구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사람들이 바라는 대로 이 세상의 복을 주실 수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소발의 생각처럼 이 세상에서 의인에게는 무조건 좋은 일만 생기고 악인에게는 파멸만 있을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천국과 세상을 나란히 두고 생각하면 이 세상에서 잘 풀리는 상황이야 말로 천국을 필요로 하지 않는 상황이기 때문에 큰 저주일 수도 있습니다.

여기서 삶에 대한 근원적인 우리의 태도가 어떠해야 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삶을 블랙커피로 마시는 태도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을 보면 사도 바울이 자신의 사도권을 변호하며 수고로웠던 삶의 여정을 호소합니다. 복음 때문에 박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매도 맞고 감옥에 갇히기도 합니다. 그런데 25~26절에서 “세 번 파선하고 일 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의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시내의 위험과 광야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라고 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왜 복음을 위한 사명의 여정에서 이 많은 위험을 방치하셨느냐는 것인데 사도 바울은 이에 대해 의문을 가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이 삶의 여정을 블랙커피를 마시듯이 설탕과 크림을 첨가하지 않고 그대로 마셨던 것입니다. 반대로 욥의 친구들의 문제는 삶의 상황에 대해 호불호의 판단을 첨가해서 삶에 대한 입장을 표명했던 것입니다.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는 마음의 공백을 채워서 만족하고 기뻐하려 할 때에 호불호의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이미 세상으로 기쁘고 만족하려 하는 것 자체가 죄악입니다.
하나님 맞춤형 사이즈로 만들어진 마음의 공백은 하늘의 하나님만으로 배부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상 것으로 마음을 채우려하고 배 부르려고 하는 것이 바로 원죄입니다. 이 원죄의 상태가 활성화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관하심을 잊게 됩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에 “참새 두 마리가 한 앗사리온에 팔리지 않느냐 그러나 너희 아버지께서 허락하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도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라고 입으로 고백하는 자들이 하나님께서 주권적으로 섭리하시는 지금 삶의 상황에 대해 호불호를 판단합니다. 이것이 곧 커피로 배 부르려고 하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욥은 마음의 공백을 채울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남지 않았습니다. 그동안 원죄적 상황에서 세상으로 마음을 채웠으되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함으로서 그 의를 인정받을 수 있었지만, 그

러나 하나님을 허락 받지 못하여 배고픈 상황이 되었습니다.

욥의 상황을 스데반 집사님이 돌에 맞아 순교하는 현장이나 사도 바울의 고난으로 점철되어진 삶과 비교해봅니다.
스데반 집사님은 천사의 얼굴처럼 되어서 돌에 맞아 죽었고 사도 바울은 “항상 기뻐하라 / 쉬지 말고 기도하라 / 범사에 감사하라”는 가르침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런데 욥은 이 어려움 앞에서 아파하고 괴로워하고 있습니다. 스데반 집사님과 사도 바울은 하늘로 배부름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사건이 있기 전의 욥은 하늘로 배부를 수 있는 길이 열려있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태에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주도하시는 삶을 믿고 받아들이다 보니 빈속에 블랙커피를 마신 것처럼 쓰림을 느낄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힘들어 합니다. 사도 바울은 욥이 당한 고난에 못지않은 고난을 겪고 몸에는 평생 가시를 박고 살았지만, 항상 기뻐하면서 범사에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하늘로 인한 배부름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배가 부르기 때문에 얼마든지 씁쓸한 블랙커피를 맛있게 마실 수 있는 상황이 되었던 것입니다.
제가 커피의 본래 맛을 죽이기 위해 설탕을 넣고 크림을 넣는 사람이지만 가끔은 블랙커피를 마실 때가 있습니다. 저희 동네에 9,900원짜리 샐러드 바가 있습니다. 메뉴가 매우 다양하기 때문에 가끔 집사람과 함께 그곳에 가서 배를 채웁니다. 후식으로 케이크도 나오는데 그럴 때에는 블랙커피를 마십니다. 배가 부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삶에서 돈 건강 성공 등을 문제 삼지만 이것들은 하나님의 주체성에 100% 맡겨져야 될 일입니다. 우리의 문젯거리가 아닙니다. 지금 상황이 형통이든 고난이든 하늘에 계신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나면 오직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삶을 블랙커피로 마실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늘로 배부르면 블랙커피가 달고 맛있습니다.
머리 둘 곳도 없이 사신 주님의 삶을 생각해보면 얼마나 불편하고 힘드셨겠습니까? 우리가 지금 집 없이 들판에서 돌을 베고 자야 하는 삶을 산다고 생각해보세요. 그런데도 주님이 그러한 삶을 힘들게 여기시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님으로 완전한 배부름을 가지셨기 때문입니다. 심지어 풍랑 속의 배에서도 단잠을 주무셨습니다. 이 세상적으로 보자면 이 상황은 쓴 상황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으로 배가 부르셨기 때문에 블랙커피 같이 쓴 상황도 맛있고 달게 느껴지셨던 것입니다.
하나님으로 배부른 자는 다윗이나 솔로몬이나 모세나 요셉처럼 승승장구하며 단 맛을 느끼든지, 욥이나 사도 바울의 생애처럼 고난으로 가득 찬 쓴 맛이 나든지 맛을 가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주체성에 의해서 주어지는 삶의 형편은 블랙커피로 마실 뿐입니다.
배가 부르지 않다면 블랙커피에 설탕이나 크림이라는 판단을 넣고 싶어집니다. 커피로 배부르려니 커피 맛을 해치는 짓을 합니다. 세상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으로 성공한다고 해서 배

부른 것도 아니고 실패한다고 해서 배고파지는 것도 아닙니다. 배고픈 이유는 하늘의 하나님을 못 먹었기 때문이고, 배부르다면 하늘의 하나님을 먹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 사건은 세상이라는 이름의 커피로 배 부르려는 마음을 죽이는 것입니다. 세상에 대해 죽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주님을 따라서 하늘로 올라가 배부르면 이 세상에서의 문제는 달라집니다. 성공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오늘 본문 22절에서도 나오지만 물론 우리의 지혜로는 하나님의 뜻을 다 깨달을 수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하셨는지에 대해서 알려고 하기 보다는, 십자가에서부터 출발하는 예수님의 동선을 따라 마음이 하늘로 가서 하나님으로 배부르고 이 세상의 삶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대로만 마시면 됩니다. 하늘로 배부른 사람에게는 하나님으로 이미 기쁜 상태이므로 세상으로 인한 별도의 실패가 없고 기쁨 또한 없습니다.
삶에서는 무조건 하나님의 뜻만이 이루어지기를 바라며 하늘로 함포고복할 때에, 스데반 집사님이나 사도 바울처럼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며 범사에 감사하는 삶을 살아가는 블랙커피 마니아들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아버지!
의인이 왜 고난을 받아야 하고 악인이 형통하다 죽는지에 대해서는 따질 필요가 없습니다. 어차피 이 세상에서의 성공이나 실패는 나를 배부르거나 배고프게도 하지 못합니다. 오직 하늘에 계신 하나님만이 배부름과 배고픔의 이유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직 주님이 움직이신 동선만이 배부를 수 있는 길이오니, 십자가 생활화를 통해 하늘로 배불러서 이 세상의 삶은 블랙커피로 마시면서 감사하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